청춘스포츠
11
2018년 8월 28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지난해 드라이빙 레인지의 자원 봉사자들. 올해에는 약 900여명으로 자원 봉사자 수를 대폭 늘렸다. 오른쪽 사진은 식사 메뉴 구성을 위해 회의 중인 F&B 서비스팀 셰프들. 사진제공 | CJ

“골프★을 맞이하라” 79번째 선수들의 땀방울

〈78명의 선수들에 이은 자원봉사자 의미〉

10월 18일부터 제주서 나흘간 개최
자원봉사 900여 명…작년보다 많아
경호원도 국내 대회 7배…안전 온힘
F&B팀, 전 세계에 ‘한국의 맛’ 소개

10월18일부터 나흘간 제주 클럽나인브릿지에서 개최되는 THE CJ CUP @ NINE BRIDGES(이하 THE CJ CUP)가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THE CJ CUP은 제주도에서 열리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3만5000여 명의 구름 갤러리가 대회장을 방문하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올해에는 더 나은 대회를 만들기 위해 인원을 보충하고, 각 담당 파트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약 50일 가량 남은 THE CJ CUP의 준비 현황을 2회에 걸쳐 자세히 살펴본다.

●대회 운영의 꽃인 900여명의 자원 봉사자 ‘TEAM79’

지난 대회에는 제주도민, 골프학과 대학생, 주한 미군 등 약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갤러리 플라자, 드라이빙 레인지 등에서 땀을 흘렸는데, 올해에는 약 900여 명의 자원 봉사자가 함께한다.

대회측은 대회에 출전하는 78명의 선수들에 이어 79번째 선수라는 의미를 가진 ‘TEAM79’ 자원 봉사자들에게 3차례 이상의 교육과 국내 골프 대회에 자원 봉사자로 참가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갤러리들과 선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THE CJ CUP 관계자는 “올해에는 제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지난해보다 2배나 많은 40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이다. 또한 자원 봉사를 희망한 주한 미군들이 대회장을 찾은 해외 선수 및 팬들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작년과 동일하게 세심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고자 한다. 국내는 물론 해외 선수 및 팬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국제 행사로서 손색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맛을 소개한다”, F&B 서비스팀

지난 해 비비고는 THE CJ CUP을 통해 한국의 맛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또한 선수, 캐디, 선수 관계자, PGA 투어 관계자, 자원 봉사자, 방송 관계자 등 2500여 명의 인원과 매일 약 1만여 명의 갤러리가 경기장을 찾았는데 대회 F&B서비스팀은 이들의 식사를 원활히 제공한 노하우가 있다.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THE CJ CUP에서는 셰프와 운영인력 등 약 500여 명이 대회 기간 동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또한 대회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푸드가 개발되어 한국의 맛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대회 F&B 총괄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CJ제일제당 이승민 부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며 대회장을 찾은 선수, 갤러리,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고 나누어 내년에도 다시 찾고 싶은 ‘맛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호팀 “대회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THE CJ CUP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갤러리들이 찾아오고 근거리에서 선수들을 직접 볼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통제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THE CJ CUP에는 국내 골프 대회 경호 인력보다 약 7배 많은 250여 명의 경호 인력이 대회장 곳곳에 배치되어 갤러리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회를 즐기는데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허보람 객원기자 hughandong@naver.com

중국 저우치 - 이란 하다디 AG 농구 최고의 별 누구냐

저우치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농구 D조의 조별예선 중국과 필리핀의 경기에서 NBA에서 뛰는 저우치(22·휴스턴 로케츠)와 딩얀유향(24·댈러스 매버릭스)을 선봉에 내세운 중국이 필리핀을 2점 차로 꺾고 조별리그 1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이번 예선 경기는 필리핀 NBA 스타 조던 클락슨과 중국의 미래 저우치와의 맞대결이 성사되어 아시아 농구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클락슨은 28득점 8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저우치 또한 25득점 12리바운드 7블록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현역 NBA 선수들의 활약과 열성적인 팬들의 성원과 함께 이번 아시안 게임 현지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아시아 농구의 전설 야오밍의 모습도 팬들에게 포착되며 전 NBA 리거들의 아시안 게임에 대한 관심 또한 더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익숙한 이름인 이란의 하다디는 마지막 AG 무대에 나선다. 2008년 멤피스에서 NBA 커리어를 시작하여 2013년까지 미국 무대에서 뛰었다. 16년 동안 국가대표 생활을 했던 하다디는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당시 한국 국가대표의 주전 센터였던 하승진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며 이란의 승리에 일조했다. 이후 하다디는 대한민국과 수차례 맞대결을 펼치며 한국의 골밑을 서늘케 하였다.

본선 경기가 시작되며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아시아 별들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많은 팬의 관심이 주목된다.

이승훈 대학생 명예기자 hi9425@hanmail.net

리즈 시절 되찾아라! 리즈 유나이티드 비상

비엘사 감독 부임 후 EFL 4승 1무
15년만의 프리미어리그 승격 도전

리즈 유나이티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뒷심 부족과 잦은 감독 교체로 승격과 인연이 멀었던 리즈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잉글랜드 풋볼리그 챔피언십 리그(EFL)에서 첫 4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강등 이후 15년 만의 프리미어 리그 승격을 정조준하고 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리오 퍼디낸드, 로비 킨, 앨런 스미스 등을 보유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과 함께 잉글랜드 1부 리그를 호령하던 강팀이었다. 하지만 경영 문제가 구단의 발목을 잡았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과 영입 실패로 인해 결국 하부 리그로 강등 당하고 말았다.

비엘사 감독

하부 리그를 전전하며 그저 그런 구단으로 변모한 리즈 유나이티드는 작년 3월 새로운 구단주가 취임하면서 재정적으로 크게 나아졌다. 임차료를 내면서 경기장을 사용하던 상황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번 시즌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며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이끄는 더비 카운티를 격파하고 스완지 시티와의 무승부 등 다섯 경기 동안 13득점 5실점이라는 성적표를 거두었다.

비록 시즌 초반이지만 파블로 에르난데스, 마테우스 클리츠, 케마르 루피의 공격과 주장 리암 쿠퍼, 부주장 루크 아일링이 이끄는 수비는 EFL에서 단연 눈에 띄는 전력이다. 비엘사 감독 역시 단단한 4-1-4-1 전술로 팀을 만들고, 선수들의 체력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듯하다. 리즈 유나이티드가 승격하여 오래전 라이벌을 다시 마주하고 올드 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신동현 대학생 명예기자 rerydh93@naver.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가을활동을 위한 최고급 골프바지 2점 55,000원

오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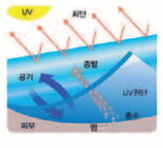
한 벌에 10만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팬츠

필드와 평상복을 넘나드는 팬츠!
차원이 다른 기능성 소재와 섬유강국의 기술력을 접목시켜 제작해 라운딩은 물론 격한 레포츠 활동도 완벽하게 커버한다, 물론 외출복이나 평상복으로도 손색이 없다.

5분전에 입은 듯 한 착각이 드는 팬츠!
이형단면을 통한 빠른 건조 기능으로 활동 시 불쾌한 엉겨붙음이 없으며 우수한 드레프스성이 탁월하며, 심플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하체가 길어보이며 밑 윗길이가 길어 편안함을 극대화 했다.

허리 밴드 부분 숨쉬는 기능은 기본!!
라운딩이나 격한 레포츠시 허리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런 점을 고려해 입체 밴드 적용으로 1인치가 줄었다 늘었다하는 기능을 접목시켜 레포츠시 편안함을 극대화 했으며, 어떠한 환경과 자세에서도 하체를 탄력적으로 받쳐주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

입체식 조임밴드적용 (허리 안쪽으로 밴드가 숨겨져있어 착용시 편안함과 스타일 유지)



※ 하체에 타이트한 팬츠가 아닙니다.

블루

네이비

그레이

색상 오렌지 블루 네이비 그레이
사이즈 30, 32, 34, 36, 38, 40
판매가 2점 55,000원 (배송비 2,500원 소비자부담)
3점 82,500원 (배송비 무료)

입금계좌 〈농협〉 301-0217-7784-41
예금주 (주)원프로톤
쇼핑몰 www.OPTOP.co.kr
문의전화 1644-3606